

시민 체감형 정책 연구 본격화

전주시정연구원, 개원 3년차 맞아 기반 확립에서 질적 성장으로 도약 추진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이 올해 개원 3년차를 맞아 기반 확립기를 넘어 질적 도약기로 전환하고, 시민 체감형 정책연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연구원 신년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연구 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나갈 계획이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해 총 42개의 연구과제와 20건의 브리핑을 발간했으며, 15회의 세미나·포럼 개최, 시의회 수탁과제 및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교육특구사업 등을 수행하며 전주시의 정책 싱크탱크로의 위상을 확장해 왔다.

이에 연구원은 올해를 질적 도약의 모멘텀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 확립 △데이터 기반의 실용적 정책연구 강화 △연구 성과 확산 및 정책 연계성 강화를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연구과제 시정 반영 건수와 신규(수탁)과제 유지 건수, 고교 만족도 등 질적 핵심성과지표(KPI)를 도입하고, 중간보고 제도화와 분야별 평가소위원회 운영으로 연구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연구발진계획(2026년~2030년)’을 수립해 중장기 방향성도 제시한다.

연구원은 또 데이터 기반의 실용적 정책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데이터 기반 연구에 투입하고, △전주시 경제 동향 분석 방법



전주시정연구원이 올해 개원 3년차를 맞아 기반 확립기를 넘어 질적 도약기로 전환하고, 시민 체감형 정책연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개발 △소상공인 지원 및 상생 방안 △생활 SOC 공간 분포 및 정책 방향 △외국인 관광실태조사 지표체계 연구 등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35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연구 성과 확산 및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해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의회 및 정책 부서와 조율·협의하고, 카드 뉴스·인포그래픽 등 시민 친화적 방식으로 성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 내 대학, 국책 연구기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부설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실행력도 점차 높여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올해 기본계획 및 적응 대책의 주기적 이행 평가 체계를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례 검토 △건설물부문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연구 △목조건축 가이드라인 연구 등 자체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브리핑 발간 △교원 대상 탄소이해력 교육(200명) △기후 및 에너지를 위한 세계 시장 협약(GGM) △ETI 국제도시 및 지역 협력(ILRC) 사업 등을 통해 기후위기 정책의 사회적 확산에 나선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올해 정책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 전주시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검토와 전주시민 대상 정책 수요조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정 현안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왔다.

먼저 지방자치 30년을 회고한 결과, 한옥마을·국제영화제·음식·문화·탄소산업 등 도시브랜드 제고와 협치형 시정 기반 확장은 긍정적 성과로 평가됐으며, 중장기·광역 관권 부족과 인구·경제 구조 변화 속도 대비 정책 대응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확인해 ‘광역전략과 현장사업’ 연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또 전주시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지난해 10월과 11월 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전주시민 717명을 대상으로 정책 수요 조사도 실시했다.

전주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강민철)는 지난날 27일 전주 시그니처호텔

에서 위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날 27일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위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교육은 △주민자치회의 법적 의의와 실질화 방안 △주민자치회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 35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주민 주도의 지역 공동체 형성과 생활 밀착형 자치 실현을 목표로, 주민 참여 확대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전주시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청년 ‘온기 프로젝트’ 로 고립·은둔 예방

전주시, 프로그램 확대 운영

전주시가 고립과 은둔을 경험하는 1인 가구 청년들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시는 1인 가구 등 고립형·은둔형 청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올해는 운영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 ‘온기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고향사랑기부금제 지정 사업인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일부터 약 10개월 동안 1인 가구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총 3~4회에 걸쳐 소셜다이닝(선호 레시피 조리·시식)과 팀빌딩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는 올해 새롭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유대감 형성을 위해 이 프로그램 외에도 상시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스타더, 취미, 선별 활동 등 관심 분야가 맞는 청년 5인 이상이 신청할 경우 그룹형 모둠활동을 구성해 활동공간과 전문 멘토, 유사 프로그램 연계, 참여 주도 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1인 가구 등 고립형·은둔형 청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온기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전주시 청년(18세~39세)이며, 모집 기간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정원 초과 시까지다. 프로그램은 전주시 청년센터 ‘청년 이음전주’(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5 번지)에서 운영된다. 한편 온기 프로젝트 등 청년이음전주 프로그램과 정책사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청정시대 누리집’(youth.jonju.go.kr) 또는 청년이음전주 SNS(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5318~9)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지난해 청년이음전주 프로그램 운영 시 청년들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한 결과, 대부분 프로그램 접수가 조기 마감될 만큼 큰 호응을 확인했다”면서 “수시로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제107주년 삼일절 기념 참배행사

전주시, 순국선열 숭고한 넋 기려

전주시가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독립 정신을 계승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시는 지난 1일 송천동 독립운동기념탑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신경성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회

원, 기관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제107주년 삼일절 기념 참배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인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고귀한 희생정신과 숭고한 애국심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헌화와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삼일운동은

은 국민이 하나 되어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위한 위대한 역사”라며 “애국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깊이 새기고 그 뜻을 이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강한 전주,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전주시민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일절은 지난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 국민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는 차원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민족의 자주독립 의사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날로,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청년 시각에서 정책 발굴·미래 설계한다

제10기 전주시 청년희망단, 역량 강화 교육·소통 워크숍 가져

전주시가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 문제를 발굴하고, 청년정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0기 청년희망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달 27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청년희망단 단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기획과 제안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더불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단원간 친목 도모와 팀워크를 향상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청년희망단은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제안하기 위한 전주시 대표 청년참여기구로, 제10기 단원들은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청년회

망단의 정책 제안 과정에서 유사·중복사업 제안을 줄이고, 제안된 정책이 단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 초기 단계부터 분과별로 청년희망단 멘토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단원들은 오는 3월부터는 △기획소통 △일자리정책 △인구정책 △문화교육 △복지의 5개 분과로 나뉘어 매달 정기적인 분과 모임을 통해 청년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과제로 구체화해 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